

## 우리 수령님의 평가기준

언제인가 정원을 거니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희귀한 닭 한마리를 보게 되시었다.

과중한 집무로 피곤을 푸실 사이도 없이 일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책의 한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시도록 하기 위해 일꾼들이 새로 구해놓은 관상용닭이었다. 발뒤축에 여러가지 색깔의 털이 길게 나있어 《털발닭》이라고 하는 그 닭은 정말 보기에다 깜찍하고 귀여웠다.

흥미가 동하시는데 닭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일군에게 그 닭이 1년에 알을 얼마나 낳는가고 물으시었다.

80알정도 낳는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우 놀라시는 표정으로 일군을 피뚱 돌아보시었는데 수령님의 존안에는 실망의 빛이 어려있었다.

《보통닭은 200~250알을 낳는데 80알을 낳아서야 어디에 쓰겠소.》

몹시 서운한 어조로 하시는 그이의 말씀이었다.

일군은 서둘러 이 닭은 고기와 알을 생산할것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관상용닭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닭이야 알을 많이 낳아야지 보거나 좋아서 무얼 하겠는가, 자신께서는 아무리 보기 싫게 생겨도 알을 많이 낳는 닭이 있으면 매일 보러 나오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1년에 알을 한 400알 낳는 닭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을 공급할게 아닌가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더 잘 먹이고 잘살게 하시려고 늘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모든 가치평가의 절대적기준은 오직 인민의 리익이고 행복이었다.

아무리 현란하고 새로운것이라도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덕을 줄수 없는것이라면 전혀 무의미하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평가기준이었다.